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예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별빛공방 '한송지' 작가

어떻게 도자공예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원래는 시각디자인 전공인데, 대부분의 선배들이 서울로 취업을 갔다가 경력단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경력단절 후에 내가 뭘 할 것 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 하다보니, 원래 공예를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예 중에서도 도자공예를 선택하게 되어서 이렇게 도자공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자공예의 길은 어떤가요?

도자공예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대학교 3학년쯤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1년을 휴학하고 우선 배워보자는 생각에, 1년 휴학을 하고 도자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작업실 겸 작업을 하다가 다시 한번 도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에 장작가마를 하고 계시는 군산의 소우 진범석 선생님 아래서 장작가마·전통가마를 장작 나르면서 배우다가, 조금 예술만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군산을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없을 때 통장에 만 원 있을 때 이런 기억·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예술로만 살기로는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별빛공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예술로 밥 벌어먹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조금 이 공간을 다르게 꾸며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도자 수강이나 프랑스자수 수강 그리고 2020년 5월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회화 선생님이오 오셔서 회화 수업도 하고 있고, 평소에는 카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경력단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게 틀린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시는 거 같아요. 공예라는 부문·도자라는 부문들이 심신의 위로같이 느껴지시는지 되게 공방 수강생 문의도 오셔가지고, 본인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제일 고민되고 있는 경력단절과 본인의 우울감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제일 고민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하다 보면 다섯 분의 세 분은 우습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분들이 힘들고 우울한 그런것을 사실은 남성분들은 잘 모를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생애 주기적으로 여자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겪게 되는 수순인 그 부분을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있는게 옳다라고 알려주시는거 같아요

요즘 작품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작년부터 다기에 빠져있습니다. 차도 함께 배웠었고요. 차 하는 저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차분하고 절도있는 차 내리는 모습, 그리고 그 차에 어울리는 다기를 만드는 것 다기라고 하면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짝어나온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일반인분들은 다도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다기를 기능을 가지고 가되 조금 더 현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감성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은 되게 모래알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래가 조금씩 풍화작용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점력을 가진 흙이 되겠죠? 그 흙이 훗날에는 제가 이렇게 예술 활동도 하고 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던지, 이런 제 삶에 녹아나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 나중에 완전 훗날을 봤을 때 내 삶의 모습이 좋은 이쁜 작품이 되어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별빛공방으로 놀러오세요!

어떻게든지 겪어야 되는 그런 경력단절이라는 문제가 혼자 겪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좋은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니까요. 다른 공예를 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 쪽으로 오셔서 그저 그냥 얘기만 해주셔도 되고 참여 해주셔도 되고. 남성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 받지 않습니다. 우리 누나, 우리 엄마 그리고 내 동생도 같이 겪어왔고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조금 더 생산적이고 조금 더 희망차게 바뀌어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주저 없이 별빛공방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대화도 나눠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역할이 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주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검은 하늘에 별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나는 완주의 하늘에 나라는 별자리를 새겨 넣고 싶다.
